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1)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13,14)

# 폴발

2023년 1월 VOL.161

다시 모이자 폴발 고을로!

# 2023



# 초동의 기도

## 초동교회 신앙공동체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초동교회는 주님께 부름을 받은 이 땅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요,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입니다. 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주님께 맡은바 이 시대의 치열한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날마다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회복을 넘어 폭발하는 부흥의 길로 나아가도록 친히 이끌어주소서.

주여, 초동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어우러지게 하소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열정이 차고 넘치게 하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소서.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선교가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시낭송, 학술 세미나, 성경 강좌 등 기독교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되게 하소서.

주여, 오랜 세월 말씀의 반석 위에 우뚝 세워진 초동교회는 서울의 교통 요충지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상에서는 어디로든 모든 도로가 통하고 지하에서는 전철 1, 3, 5호선이 다니는 종로3가에 있습니다. 종로와 서울을 넘어 한반도와 지구촌에 초동교회의 구원과 생명의 종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게 하소서. 초동교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소서.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인정과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문 연작」은 회복의 시대를 열며 초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동기도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문은 페이지 139부터 보실수 있습니다(담임목사 손성호).

## 초동교우들의 매일이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을 뚫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저 눈부신 태양처럼 우리도 일어나게 하소서. 어둠의 죄악 가운데 주저앉게 하지 마시고 생명의 빛을 향해 힘차게 일어나게 하소서. 모든 불신앙과 미움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일어서고, 소망으로 일어서며, 사랑으로 우뚝 서게 하소서.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소서. 쾅쾅 언 심령을 녹이시고, 냉랭한 마음을 치유하셔서 뜨거운 심령으로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구원과 생명의 빛이 널리 비치는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주여, 지금은 참으로 시대가 어둡고 암울합니다. 시대가 어둡고 상황이 암울할수록 빛의 역할은 더욱 소중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고 맙니다. 일찍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소서.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주변의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니, 큰빛 되시는 주님의 자녀답게 이 땅의 작은 빛들이 되어 곳곳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의 빛을 사방에 널리 비추게 하소서. 2023년의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처럼 주님께 힘을 얻고, 날마다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여, 이제는 옛사람과 옛 습관을 탈탈 털어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회와 이웃에는 선한 영향력을 발하는 빛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프고 괴로울 때,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할 때,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소서. 우리를 광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채찍으로 우리의 아둔한 심령을 깨워 주소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말씀의 등불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